콘서트로 만나는 '행복의 길, 출가!'

11월 26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서

출가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 이번엔 부산서 만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7시 부산 부경대 대학본부 2층 대연캠퍼스 대회의실(대강당)서 하반기 출가 콘서트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번 하반기 출가 콘서트에선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의 깊이 있는 강의와 즉문즉설 시간이 마련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밖에 일상 고민을 질문하고, 명쾌한 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진행은 BTN 지대방에 출연하는 진명 스님이 맡으며, '속사포 랩퍼'로 유명한 불자 가수 아웃사이더가 함께 출연한다. 사전 질문은 '행복의 길을 찾아서 출가 사이트(monk.buddhis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출가를 해도 사회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출가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02)2011-1810 하성미 기자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작은 정성으로 희망을"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서 '제11회 100원 희망불씨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콘서트를 통해 '100원 희망 저금통'을 나누고 작은 정성을 모아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우를 돕는다. 또 장기 및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등록 사업 캠페인도 실시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종립학교 해동고등학교에 생명나눔본부장상을 수여해 학생들의 희망 저금통 기금 모금 활동을 치사했다. 무대는 수월 스님과 가수 주병선의 음악으로 채워졌다. 이어 부산생명나눔 부본부장 목종 스님의 토크 콘서트로 생명의 존귀함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하성미 기자



11월 4일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가 개최한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현장.

"100만 불자 포교 양성터 되길"

성암사,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



성암사가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식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법회'를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개최했다.

도량 불사 신축, 포교 서원

불교대학 동문·신도 힘 모아

극락전 죽림당 등 7군데 개원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환호

성암사가 도량 불사를 마무리 하고 100만 불자 포교 양성터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성암사(주지 응현)는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식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법회'를 경내 특설무대서 봉행했다. 신축도량 개원은 경남불교대학 동문과 불자들이 합심해 일군 것으로, 이를 통해 성암사는 현대불교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다.

개원식은 오백나한 점안식으로 시작해 내빈들의 축하 속 테이프 컷팅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주지 스님 인사말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오백나한 조성 불사에 힘쓴 송창일 천종사 대표와 배익부 건축가, 장필규 (주)경도건축 대표가 받았다. 공로패는 곽성규 성암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김상규 경남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이 수상했다.

주지 응현 스님은 "160명의 모든 소임자와 3만여 명의 우리 성암사 신도님들께 성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오늘 자리를 빛내 준 대덕 스님과 내외 빈께도 손 모아서 깊은 축원을 올리겠다"며 "가시밭길의 능선을 지나 눈물의 강을 17년 넘게 달려왔다.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암사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성대한 점안 법회서 여러분이 알 것은 마음 밖의 부처가 아닌 자신을 주인공 삼는 마음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교를 믿는 이유는 고통을 멀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인데 스스로 자문하고 앞으로 수행의 길을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이번 성암사 불사에는 신도들이 함께해 의미가 깊다.

성암사 신도들은 1999년 주지로 부임한 응현 스님의 서원인 화엄도량 백만불자 양성에 동참하고 불교교육도량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섰다.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동문은 2010년 10월 다라니 기도 순례단을 결성하고 매달 1000여명의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108산사순례를 시작해 5년 동안 총 2회 진행했다. 이어 2008년에는 한평 불사 운동을 위해 '108연꽃모임'을 결성하고 터를 매입해 2014년 7월 도량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했다.

성암사는 이번 개원식에서 오백나한전 외에도 공양간, 청풍당, 극락전, 죽림당, 송림다원, 야외삼존불, 2층 야외 법당을 함께 개원했다. 하성미 기자

"유일한 청소년 포교船 파라미타 난파 안 돼"

창립 20주년 지도자 포럼



파라미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도자 포럼 및 워크숍을 부산 홍법사 교육관서 11월 5일 진행했다.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청소년포교기관으로 유일한 파라미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단의 관심을 촉구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단 주장이 이어졌다.

파라미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도자 포럼 및 워크숍을 부산 홍법사 교육관서 11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년 동안 활동을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파라미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파라미타 사무총장 성진 스님은 "파라미타는 불교의 유일한 청소년 포교 기관임에도 불구, 그동안 종단 관심 부족으로 고아와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 사립과 국립 등 전국 학교 1만5,260개 가운데 불교 종립학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는 16개, 고등학교는 17개인 상황을 설명했다. 성진 스님은 "요즘처럼 바쁜 학생들이 시간을 내 절을 찾는 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 파라미타를 통한 포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진 스님은 파라미타 활동 바탕에는 사찰이 언제나 연계 돼야하며, 사찰과 학교 간 소통을 위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사무처의 역할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같은 불교문화를 토대로 한 활동을 더욱 개발하고 해외봉사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어 이학주 동대부여중 교법사는 '파라미타 향후 발전 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마련'이란 주제로 "요즘 시대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그들에게 파라미타만이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마련,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안과 행복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기석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의 '파라미타 주요 활동 확대 방안(국제 교류 봉사활동 중심)'과 엄태호 광신고등학교 교사의 '학교 분회와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법회 활성 방안 마련'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회장 심산 스님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이 기쁘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재가 안거 수행으로 '뜨거운 겨울'

11월 8일 재가불자 1500여명 동시 입재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는 11월 8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올 겨울, 부산 불자들의 수행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8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재가 안거는 매년 재가불자들의 신심 증장과 수행풍토를 위해 안거철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동안거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며,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서 주관한다. 재가안거 수행을 회향한 불자는 포교원 인증으로 수여되는 안거증을 받는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수행에 대한 자세를 바로 잡고 나를 깨우는 108배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재가 안거에는 부산 17사찰과 1,5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11월 14일을 시작으로 회향일은 2017년 2월 11일이다. 이 기간 동안 불자들은 조계종 연합회서 제공한 수행록에 따라 개인별로 수행을 체크하고 각 사찰서 주지 스님께 점검 받으며 서로를 독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성미 기자

보현회, 장애인 위한 나눔 체육대회

11월 6일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



부산 보현회는 11월 6일 사상괘법초등학교서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한마음이 돼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열렸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1월 6일 사상괘법초등학교서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물품 후원 뿐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직접 나누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성우원, 평화의 집, 부산직업재활원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등 부산 장애인 기관 8군데와 보현회 자원봉사단 및 보현회 청년회 25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이 회장은 "19년 전 만난 아이들이 이젠 성장해 40살이 넘는 사람도 있다. 매년 만나면 운동회 언제 하냐며 기다리는 모습에 이렇게 찾게 된다"며 "이 시간을 통해 버림받았단 생각이 안 들도록 도와주고, 체력도 키워 건강을 되찾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원오사, 사랑의 장터로 여는 나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 개최



부산 원오사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를 대웅전 앞마당서 개최했다.

지역 아동의 공부방을 후원하기 위한 사랑의 장터가 열렸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를 대웅전 앞마당서 개최했다. 원오사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 서왔다. 매년 개최하는 후원자선바자회는 지역의 나눔 장터가 될 뿐 아니라 아동 복지를 위해 지역 내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원오사와 인연이 있는 롯데 야구 선수 강민호가 참여해 사인볼을 나누고 포토타임을 가져 관심을 끌었다.

주지 정관 스님은 "공부방을 운영한 지 8년에 접어든다"며 "매년 바자회 수익금을 공부방 운영과 장학금으로 회향하며, 중3학생들을 위해 졸업 기념 해외여행도 보낸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의상대사의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로 가는 길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에서 공부하고자하는 신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본원의 특징은 중국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 설일체유부, 구사의 지관수행, 중관수행, 유식의 유심수행, 여래장 사상, 선과 화엄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 흐름을 교학적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 접목하였습니다.

원장스님은 스리랑카와 인도 뿌냐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구사론 복 주석서, 유가사지론, 십지론,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사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삶의 방식으로 인해 세계화 되어가는 한국사회를 반영하여 매년 한국 불교 강맥의 산 증인이신 원조 각성 큰스님과 티벳 중앙대학 학과장 타시체링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설하고 있고 또한 남방의 고승대덕을 모실 계획입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21세기의 한국 불교를 세계화 하는 승가의 일원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 상주형, 비상주형 비구학인 (2년 전문과정) (2017년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비구니는 비상주형만 가능)
- 문 의 처 : ☎054)833-2324 (고운사 종무소)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 개 강 일 : 2017년 4월 1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운사 홈페이지 입학양식), 승려증 사본,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증명사진(3×4) 2매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